

經脈과 絡脈의 循行 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姜棟允, 趙學俊*

The Relativity between the Circulating Pattern of the Channels, the Collaterals, and the Movement Distinction of YoungGi, and WiGi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oung University

Kang Dong-Yoon, Jo Hak-Jun

Analyzed the subject of 'To heart' meridian system(向心脈系), and 'Circulating' meridian system(循環脈系), and considered relativity between the circulating pattern of the channels, the collaterals and the circulating distinction YoungGi(營氣), WiGi(衛氣). The subject of 'To heart' meridian system is WiGi, and this system is similar to the moving pattern of the fifteen major collaterals(十五絡脈). The subject of 'Circulating' meridian system is YoungGi, and this system is same with the moving pattern of the twelve regular channels(十二經脈). YoungGi and WiGi have the same origin, and they are intrinsic one thing with functional ambivalency. It is WiGi, the subject of the movement of Collateral, because it is identical the moving pattern of Collaterals(絡脈) and that of WiGi as the subject of the movement of Collateral. It is YoungGi, the subject of movement of Channel, because it is identical the moving pattern of Channels(經脈) and that of YoungGi. It can be defined that Wigi as the subject of the movement of Collateral, also YoungGi as the subject of movement of Channel, but that is from its function and action, there's no need to be separated within the framework of going through Meridian. YoungSuBosa(迎隨補瀉) in acupuncture, defines its basis not only on the moving direction of YoungGi, but on combined difference between the directions, moments, and sex. Until now it is under discussion the rights and wrongs, It's not contradictory concept between two basis of YoungSuBoSa, from the thought the distinct movement of WiGi and the circulation pattern of Collaterals have no specified directions.

Key Words : YoungGi and WiGi, 'To heart' meridian system, 'Circulating' meridian system.

I. 序 論

氣의 運動形式은 氣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升·降·出·入의 네 가지 形式으로 귀납할 수 있다¹⁾. 五臟

* 교신저자: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043-649-1347, johohun@kornet.net

1) 박찬국.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 44.

六腑의 氣는 인체의 ‘升降出入’이라는 氣의 運動 양식을 통해 經脈으로써 人身을 運營한다.

經脈은 인체 내 氣血 運行의 통로로서 經脈에서 運行되는 經氣는 營·衛氣의 ‘升降’ 運動으로 표현되며, 또한 인체가 外氣와 水穀之氣를 받아들이고 배설하는 활동은 外氣와 水穀之氣의 ‘出入’ 運動으로 표현된다.

『靈樞·經脈』을 살펴보면 營氣의 運行은 ‘循環性’의 特徵을 지니는 반면에, 「本輸」 등에서 四肢末端에서 體幹으로 향하는 ‘向心性’의 特徵을 지닌 經脈體系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經脈의 循行 方向에 대해서, 손광락 등은 經脈循行을 向心성과 循環성으로 大別된다²⁾고 하였고, 최근에 김기욱 등은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는 ‘臟腑의 原氣’이며,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는 水穀之氣로부터 얻어진 ‘營氣’라고³⁾ 주장하였으며, 백유상은 ‘循環’ 脈系에는 ‘營氣’의 循環과 ‘衛氣’의 循環이 있으며, ‘一方의’ 經脈流注에서 ‘精氣’가 生成됨⁴⁾을 주장하였다. ‘一方의’ 經脈流注는 ‘向心’ 脈系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다.

위와 같이 經脈의 循行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經脈體系는 대체적으로 ‘向心’ 脈系와 ‘循環’ 脈系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向心’ 脈系와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에 대해서 異見이 있으며, 經脈과 絡脈의 循行 樣式이 다른 까닭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向心’ 脈系,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를 분석하고, 經脈과 絡脈의 循行 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經氣는 經脈中을 運行하는 氣를 말하는데, 그 運

2) 孫光洛,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東國한의학연구소논문집. 6(1). pp. 35-66.

3) 金基郁 외1인. 靈樞·經脈과 靈樞·本輸의 經脈體系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8(3). pp. 27-35.

4)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關係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pp. 37-56.

行 主體는 역할에 따라서 營氣, 衛氣, 宗氣, 原氣로 구분⁵⁾할 수 있다.

經脈體系는 四肢末端에서 體幹으로 向하는 ‘向心’ 脈系와 十二經脈이 如環無端하는 ‘循環’ 脈系로 大別할 수 있다. ‘循環’ 脈系의 根據는 『靈樞』의 「經脈」, 「衛氣行」이 있으며, ‘向心’ 脈系의 根據는 「足臂十一脈灸經」과 『靈樞』의 「九鍼十二原」, 「本輸」, 「根結」, 「衛氣」, 「邪客」, 「背腧」, 「經筋」 등이 있다.

그런데 ‘循環’ 脈系는 ‘衛氣行’을 포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衛氣’가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로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할 수 있다.

따라서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는 ‘營氣’라는 주장과 ‘營氣 및 衛氣 모두’라는 주장이 있게 되었다.

또한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는 ‘臟腑의 原氣’라는 주장과 ‘精氣’라는 주장으로 相異하다.

이에 ‘向心’ 脈系, ‘循環’ 脈系에 따른 運行 主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經脈 體系의 運行 主體

앞서 언급한 것처럼 經脈을 運行하는 主體는 營氣, 衛氣, 宗氣, 原氣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本輸」의 經氣의 循行 方向은 「經脈」의 循行 方向과 매우 다르다. 따라서 運行 主體에 있어서 「本輸」와 「經脈」이 다르다는 점에는 異見이 없다.

왜냐하면 營氣, 衛氣 등의 한 가지 氣가 동시에 相異한 方向으로 循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가능하다면 經脈의 循行 方向의 逆順에 따라서 迎隨補瀉를 하는 ‘鍼芒補瀉’가 의미가 없게 된다.

이에 먼저 「本輸」 등에 나타난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에 대한 根據와, 「經脈」 등에 나타난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와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에 대한 根據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本輸」 등의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

현재까지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에 대해서 주로 經脈의 循行 方向을 根據로 하여 ‘臟腑의 原氣’와 ‘精氣’로 인식해 왔다.

5) 전국한의과대학교. 鍼灸學「上」, 서울. 집문당. 1988. p. 37.

그 根據를 살펴보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臟腑의 原氣」가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인 根據 「九鍼十二原」에서 經脈 運行의 特性이 四肢末端에서부터 出·溜·注·行·入하는 「向心性」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黃帝曰, 願聞五臟六腑所出之處. 岐伯曰, 五臟五腑, 五五二十五脈, 六腑六脈, 六六三十六脈, 經脈十二, 絡脈十五, 凡二十七氣, 以上下.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二十七氣所行, 皆在五臟也. …… 五臟有六腑, 六腑有十二原, 十二原出於四關, 四關主治五臟. 五臟有疾, 當取之十二原. 十二原者, 五臟之所以稟, 三百六十五節氣味也. (「九鍼十二原」)⁶⁾

여기에서 五臟六腑가 「十二原」에서 氣를 품부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十二原」에서 품부 받는 氣가 무엇인지 명확히 지적하지는 않았다.

또한 「本輸」에서 經脈 運行 特性이 四肢末端으로 나와 井·榮·輸·經·合을 흘러 다시 五臟六腑로 되돌아오는 「向心性」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凡刺之道, 必通十二經絡之所終始, 絡脈之所別處, 五輸之所留, 六腑之所與合, 四時之所出入, 五臟之所溜處 …… 肺出於少商, 少商者, 手大指端內側也, 爲井木. 溜於魚際, 魚際者, 手魚也, 爲榮. 注於太淵, 太淵, 魚後一寸陷者中也, 爲腧. 行於經渠, 經渠, 寸口中也, 動而不居, 爲經. 入於尺澤, 尺澤, 肘中之動脈也, 爲合. 手太陰經也. 心出於中衝, 中衝, 手中指之端也, 爲井木. 溜於勞宮, 勞宮, 掌中中指本節之內間也, 爲榮. 注於大陵, 大陵, 掌後兩骨之間方下者也, 爲腧. 行於間使, 間使之道, 兩筋之間, 三寸之中也, 有過則至, 無過則止, 爲經. 入於曲澤, 曲澤, 肘內廉下陷者之中也, 屈而得之, 爲合. 手少陰也. (「本輸」)⁷⁾

여기에서 손광락은 「本輸」의 篇名을 根據로 「本輸」에서 언급한 「向心」 脈系의 主體가 「原氣」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本輸」의 「本」은 『難經』의 해석대로라면 人體의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12-13.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20-22.

「原氣」를 대표하는 「五臟六腑之本」이고, 「輸」는 「原氣」가 四關으로 輸出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또한 김기욱도 손광락의 의견을 따라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臟腑가 人體의 「本」이 된다면 人體의 「原氣」는 臟腑의 「本」이 된다. 또한 「本輸」의 「五臟六腑之所出」이라는 것은 「臟腑의 原氣」가 四關으로 향하여 發出하는 것이며, 「五臟六腑所出之處」는 「臟腑의 原氣」가 四關으로 發출하는 구체적인 곳으로 井·榮·輸·原·經·合 등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井·榮·輸·原·經·合은 「臟腑의 原氣」가 循行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이와 같이 「本輸」에 나타난 經脈의 運行 主體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다만 篇名과 內容에서 추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精氣」가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인 根據

「九鍼十二原」, 「本輸」, 「根結」, 「衛氣」, 「經筋」에 나타나 있는 經脈體系는 向心性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백유상은 『素問·經脈別論』에 根據하여 食氣가 胃→心→脈→經→肺→皮毛→府(백유상은 府를 「精氣가 저장되는 창고」로 설명함)의 순서를 따라 精氣로 化生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穀氣로부터 精氣를 生成하여 五臟으로 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精氣를 갈무리하여 五臟 안에 五神을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精氣가 五臟 속에 갈무리되는 精氣를 말하는 것이며, 이 精氣는 우리 몸에서 가장 體表의 末端에서부터 만들어져 들어옴을 알 수 있다. 즉 「毛脈合精, 行氣於府」의 과정을 통하여 精氣가 生成되어 五臟 속에 갈무리되는 것이다.”¹⁰⁾라고 하여 『經脈別論』의 內容을 根據로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가 「精氣」라고 주장하였다.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

8) 孫光洛,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東國한의학연구소논문집. 6(1). p. 36.
9) 金基郁 외2인. 靈樞·經脈과 靈樞·本輸의 經脈體系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8(3). p. 33.
10)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p. 50.

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素問·經脈別論』)¹¹⁾

(3) ‘衛氣’가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인 根據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가 ‘臟腑의 原氣’나 ‘精氣’가 아니라, ‘衛氣’로 볼 수 있는 根據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① 衛氣의 特性이 ‘標悍滑疾’하다.

「邪客」에서 滑利한 氣가 엄지손가락 끝으로 出한 手太陰脈이 魚際, 太淵을 거쳐 다시 肺臟으로 들어가는 ‘向心性’ 經脈을 언급하였다.

手太陰之脈, 出於大指之端, 內屈, 循白肉際. 至本節之後太淵, 留以澹, 外屈, 上於本節下, 內屈, 與陰諸絡會於魚際, 數脈并注, 其氣滑利, 伏行壅骨之下, 外屈, 出於寸口而行, 上至於肘內廉, 入於大筋之下, 內屈, 上行臑陰, 入腋下, 內屈, 走肺. 此順行逆數之屈折也. 心主之脈, 出於中指之端, 內屈, 循中指內廉以上, 留於掌中, 伏行兩骨之間, 外屈, 出兩筋之間, 骨肉之際, 其氣滑利, 上二寸, 外屈出行兩筋之間, 上至肘內廉, 入於小筋之下, 留兩骨之會, 上入於中, 內絡於心脈.(「邪客」)¹²⁾

여기에서 ‘그 氣가 滑利하다’는 것은 ‘衛氣’의 ‘標悍滑疾’의 特性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邪客」의 四肢 末端에서 心, 肺로 들어가는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는 ‘衛氣’임을 알 수 있다.

② 衛氣의 循行은 一定的한 經隧를 通行하지 않는다.

「衛氣」에서 “其浮氣之不循經者, 爲衛氣. 其精氣之行于經者, 爲營氣. 陰陽相隨, 外內相貫, 如環之無端,”라 하여 衛氣는 一定的한 經隧를 通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백유상은 營氣는 一定的한 經隧를 통하는 것과 달리, 衛氣는 循環的 經脈 流注를 하고 있으나 그 經路가 뚜렷하지 않다¹³⁾고 하였다.

그런데 백유상이 서술한 ‘循環的 經脈 流注’란 「衛氣行」의 經脈 循行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營氣의 ‘一線의 循環 구조’와 다르다.

「衛氣行」의 經脈體系는 ‘陽分의 多線의 小循環’과 ‘陰分의 一線의 小循環’이 만나서 완성되므로, 두 개의 小循環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大循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陽分의 多線의 小循環’ 내에서 多線의 經脈 路線은 모두 頭部의 目과 耳에서 출발하여 手足으로 向함으로써, ‘向心’ 脈系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표3을 참조하길 바란다.

③ 衛氣의 循行 特性이 陽分으로 나와서 陰分으로 들어감

「根結」에서 經氣가 人身의 陽分인 體表인 四肢 末端에서 시작하여 頭面과 胸部로 循行함을 알 수 있다.¹⁴⁾

太陽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 陽明根於厲兌, 結於頰大, 頰大者, 鉗耳也. 少陽根於竅陰, 結於窓籠, 窓籠者, 耳中也. …… 太陰根於隱白, 結於太倉. 少陰根於湧泉, 結於廉泉. 厥陰根於大敦, 結於玉英, 絡於臚中(「根結」)¹⁵⁾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根	結
太陽	根於至陰	結於命門(目也)
陽明	厲兌	頰大(鉗耳也)
少陽	竅陰	窓籠(耳中也)
太陰	隱白	太倉 ¹⁶⁾
厥陰	大敦	玉英絡於臚中
少陰	湧泉	廉泉

표1. 『靈樞 根結』六經의 根結

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p. 55.

14) 足三陰三陽의 根은 井穴에서 起한다. 足三陽은 頭面에서 結하고, 足三陰은 胸腹에서 結한다.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50.

16)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關係에 對한 研究. 大韓한의학원전학회지. 17(4). p. 42.

“대부분의 醫家들이 ‘太倉’을 任脈의 ‘中腕穴’로 보았으며 張志聰은 ‘舌本’이라고 주장하였다.”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86.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299.

13)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關係에 對한 研究. 대

또한 「根結」에서 根·溜·注·入은 四肢末端인 井穴에서 起始하여(根), 原穴과 經穴로 行하고(溜·注), 絡穴(飛揚, 豐隆, 光明, 支正, 偏歷, 外關)을 통해 頭部와 胸部로 循行하고(入), 다시 頸項部(天柱, 人迎, 天容, 天窓, 扶突, 天牖)를 통해 五臟으로 循行하는(再入)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즉 經氣가 四肢 末端의 陽分으로 出·溜·注하여 陽分인 頭部와 胸部로 循行하다가, 陽分인 頭頸部를 통해 다시 陰分인 五臟으로 들어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足太陽根於至陰, 溜於京骨, 注於崑崙, 入於天柱飛揚也. 足少陽根於竅陰, 溜於丘墟, 注於陽輔, 入於天容光明也. 足陽明根於厲兌, 溜於衝陽, 注於下陵, 入於人迎豐隆也. 手太陽根於少澤, 溜於陽谷, 注於少海, 入於天窓支正也. 手少陽根於關衝, 溜於陽池, 注於支溝, 入於天牖外關也. 手陽明根於商陽, 溜於合谷, 注於陽谿, 入於扶突偏歷也. 此所謂十二經者, 盛絡皆當取之(「根結」)¹⁷⁾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太陽	陽明	少陽	
足	根	至陰	厲兌	竅陰
	溜	京骨	衝陽	丘墟
	注	崑崙	下陵	陽輔
	入	天柱·飛揚 ¹⁸⁾	人迎·豐隆	天容·光明
手	根	少澤	商陽	關衝
	溜	陽谷	合谷	陽池
	注	小海	陽谿	支溝
	入	天窓·支正	扶突·偏歷	天牖·外關

표2. 「根結」의 手足三陽經의 根溜注入

또한 「本輸」에서 陽經과 任督脈의 頸項部の 穴(天突, 人迎, 扶突, 天窓, 天容, 天牖, 天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上記한 「根結」의 出·溜·注·入에서 入(天柱, 人迎, 天容, 天窓, 扶突, 天牖)하는 것과 동일하다.

缺盆之中, 任脈也, 名曰天突. 一次, 任脈側之動脈,

足陽明也, 名曰人迎, 二次脈, 手陽明也, 名曰扶突, 三次脈, 手太陽也, 名曰天窓, 四次脈, 足少陽也, 名曰天容, 五次脈, 手少陽也, 名曰天牖, 六次脈, 足太陽也, 名曰天柱, 七次脈, 頸中央之脈, 督脈也, 名曰風府.(「本輸」)¹⁹⁾

이로써 「本輸」와 「根結」의 經脈 循行이 동일하므로 그 運行 主體도 동일한 「衛氣」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根結」과 「本輸」에서 陽分으로 나와서 陰分으로 들어가는 특성을 지닌 循行은 「衛氣」의 運行 特性이므로, 四肢 末端에서 頭頸部와 胸部를 거쳐 五臟으로 들어가는 「向心」脈系의 運行 主體는 衛氣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衛氣」에서의 「本」 「標」은 「根結」에서의 「根」 「結」의 의미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으로, 十二經의 「本」 「標」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本이 되는 部位는 四肢末端의 根·溜·注·入에 해당되고, 標의 部位는 根結의 「結」 부위와 根·溜·注·入에서의 動脈處의 「入」 부위와 「背俞」까지도 포함하였으니, 「根結」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²⁰⁾.

足太陽之本, 在跟以上五寸中, 標在兩絡命門, 命門者, 目也.

足少陽之本, 在竅陰之間, 標在窓籠之前, 窓籠者, 耳也.

足少陰之本, 在內踝下上三寸中, 標在背腧與舌下兩脈也.

足厥陰之本, 在行間上五寸所, 標在背腧也.

足陽明之本, 在厲兌, 標在人迎, 頰挾頰頰也.

足太陰之本, 在中封前上四寸之中, 標在背腧與舌本也.

手太陽之本, 在外踝之後, 標在命門之一寸也.

手少陽之本, 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 標在耳後上角下外眥也.

手陽明之本, 在肘骨中, 上至別陽, 標在顏下合鉗上也.

手太陰之本, 在寸口之中, 標在腋內動也.

手少陰之本, 在銳骨之端, 標在背腧也.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50.

18) 手足陽經의 絡穴로 굵은 글씨로 표시함.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2.

20) 『靈樞·根結』에서는 手足陽經의 根流注入과 足經의 根結만을 논하였다.

手心主之本,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標在腋下三寸也.(「根結」)²¹⁾

2) 「經脈」등과 「衛氣行」의 「循環」脈系의 運行 主體 「循環」脈系의 運行 主體의 차이는 「經脈」만을 「循環」脈系로 보느냐, 아니면 「衛氣行」까지 「循環」脈系로 보느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營衛生會」에서도 營氣와 衛氣의 分布에 대해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라고 하여 營衛의 循行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營氣, 衛氣의 循行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1) 「營氣」가 「循環」脈系의 運行 主體인 根據

「營氣」에 의하면 「如環無端」 「周而復始」하는 것이 「營氣」의 道이며, 水穀之氣가 胃에 들어와서 정밀한 것이 經隧에 행하여 항상 운영하여 그침이 없어서 마쳤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水穀之氣로부터 얻어진 「營氣」라고 볼 수 있다.

黃帝曰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于胃, 乃傳之肺, 流溢于中, 布散于外, 精專者, 行于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 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附上, 注大指間, 與太陰合, 上行抵脾. 從脾注心中, 循手少陰, 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 出頰內, 注目內眥, 上巔下項, 合足太陽, 循脊, 下尻,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 注足少陰, 上行注腎, 從腎注心, 外散于中, 循心主脈, 出腋, 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 上行注臑中, 散于三焦, 從三焦注臑, 出脅, 注足少陽, 下行至附上, 復從附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頰頰之竅, 究于畜門. 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 入臍,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營氣」)²²⁾

또한 「經脈」에서는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²³⁾이라 하여 飲食物에서 生成된 氣血을 運行하는

體系를 의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十二經脈은 ‘肺手太陰之脈 → 大腸手陽明之脈 → 胃足陽明之脈 → 脾足太陰之脈 → 心手少陰之脈 → 小腸手太陽之脈 → 膀胱足太陽之脈 → 腎足少陰之脈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三焦手少陽之脈 → 肝足厥陰之脈 → 上注肺’²⁴⁾로 ‘如環無端’하는 循行 經路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脈」의 運行 體系는 「營氣」의 五臟精氣가 水穀之氣를 받아들여 上下로 循環하며 전신을 榮養하는 「營氣」의 循行과 완전히 동일하다. 위와 같이, 「經脈」과 「營氣」에서 나타난 經脈體系는 「循環性」의 特徵을 띠면서 동시에 완벽히 일치하므로, 「循環」脈系의 運行 主體는 「營氣」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營氣」 및 「衛氣」가 「서로 다른 循環」脈系의 運行 主體인 根據

「營氣」가 「循環」脈系에 속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異見이 없다. 다만 「衛氣行」에 나타난 「衛氣」의 循行을 「循環」脈系에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따름이다.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手太陽, 下至手小指之間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足少陽, 注小趾次趾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 側下至小指之間,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頰脈, 注足陽明, 以下行至附上, 入五趾之間. 其散者, 從耳下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下, 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是故日行一舍, 人氣行一周與十分身之八. 日行二舍, 人氣行三周於身與十分身之六. 日行三舍, 人氣行於身五周與十分身之四. 日行四舍, 人氣行於身七周與十分身之二. 日行五舍, 人氣行於身九周. 日行六舍, 人氣行於身十周與十分身之八. 日行七舍, 人氣行於身十二周於身與十分身之六. 日行十四舍, 人氣二十五周於身有奇分與十分身之二, 陽盡於陰, 陰受氣矣. 其始入於陰, 當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36.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13.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79.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79-83.

계 循行하는 ‘衛氣’의 循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篇에서는 ‘營氣’와 ‘衛氣’의 循行을 氣의 清濁에 따라 脈의 內外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人受氣於穀，穀入於胃，以傳與肺，五臟六腑 皆以受氣，其清者爲營，濁者爲衛，營在脈中，衛在脈外，營周不休，五十而復大會(「營衛生會」)²⁶⁾

이에 대해서 손광락은 營氣와 衛氣가 同行하는지, 아니면 營氣와 다른 衛氣脈系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同行한다면 어떻게 “五十而復大會”하는지 의문점이 남는다²⁷⁾고 하였다.

이 문제는 ‘營氣’와 ‘衛氣’를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개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개체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앞에서 ‘向心’ 脈系와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를 각각 ‘臟腑의 原氣’와 ‘水穀之氣로부터 얻어진 營氣’로 구분하거나, 또는 ‘營氣 및 衛氣’와 ‘營氣 및 精氣’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二分法의인 思考로 인해 마치 ‘營氣’와 ‘衛氣’가 서로 다른 經脈體系에서 각각 運行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에 첫째 ‘營氣’와 ‘衛氣’를 두 가지 개체로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임을 밝히고, 둘째 經脈은 ‘循環’ 脈系에, 絡脈은 ‘向心’ 脈系에 속하며 營氣는 ‘단순한 循環性’을 지니며 衛氣는 ‘向心性’ 또는 ‘複合的 循環性’의 운동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시한 두 가지를 입증한다면, ‘營氣’와 ‘衛氣’는 두 가지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므로, ‘단일한 循環性’을 지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營氣’이며, ‘向心性’ ‘복합적인 循環性’을 지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衛氣’라고 추론할 수 있다.

營·衛氣의 ‘하나의 개체로서 兩面性을 지니는 특징’을 밝히기 위해 營·衛氣의 ‘一元性’과 ‘兩面性’으로 나누고, 營·衛氣의 一元性은 ‘氣血과 營·衛氣의 相關

性’ 및 ‘氣·血의 相關性’으로, 營·衛氣의 兩面性은 ‘營·衛氣의 기능의 차이점’, ‘營·衛氣의 작용 부위의 차이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氣血과 營·衛氣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氣·血과 營·衛氣가 동일한 개체를 지칭한 두 가지 명칭임을 살펴보고, 이를 根據로 氣·血이 相互轉化하므로 營·衛氣 역시 相互轉化함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氣·血과 營·衛氣의 關係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²⁸⁾가 있다.

첫째, 氣·血이 五臟이나 神氣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營·衛氣는 經絡이나 精氣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둘째, 氣·血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營·衛氣는 天地自然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셋째, 氣·血은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요, 營·衛氣는 氣血의 작용이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氣血은 體에 해당하고 營·衛氣는 用에 해당한다.

이로써 營·衛氣는 氣·血이 經絡에서 循行하면서 나타나는 작용에 기준하여 나눈 개념이므로 본질적으로 營·衛氣와 氣血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營·衛氣의 一元性

(1) 氣·血의 一元性

氣·血이 하나의 개체임을 뒷받침하는 根據로서, ‘氣血이 모두 根源이 같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氣’와 ‘血’은 모두 ‘水穀之氣’에서 근원한다.

「營衛生會」에서 胃에서 飲食物을 소화시켜 肺를 통해 五臟六腑가 氣를 받는다고 하였다.

人受氣於穀，穀入於胃，以傳與肺，五臟六腑，皆以受氣(「營衛生會」)²⁹⁾

『靈樞·決氣』에서 飲食物을 소화시켜 얻은 穀氣를 上焦에서 온몸 전신으로 보내어 皮膚를 덮히고 몸을 살찌우고 皮모를 윤택하게 하는 것을 ‘氣’라 하고 中焦에 의해 붉게 변화된 것을 ‘血’이라 하였다.

上焦開發，宣五穀味，熏膚，充身，澤毛，若霧露之漑，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19.

27) 孫光洛,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東國한의학연구소논문집. 6(1). p. 56.

28) 엄동명, 박찬국. 營衛에 對한 考察. 대한원전의사학회지. 9권. p. 728.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19.

是謂氣 ……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靈樞·決氣』)³⁰⁾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氣·血’은 飲食物의 섭취를 통해 ‘五臟의 精氣³¹⁾’에 의해 生成되는 것으로, ‘五臟의 精氣’를 보충하고 人身을 營養하는 後天的 基本물질이다.

선천적인 基本물질을 ‘精氣’라 하였듯이, 氣·血은 후천적으로 흡수된 水穀之氣가 五臟에 의해 變化된 氣로서 五臟의 精氣에 의해 人身의 모든 조직의 형태를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케 하는 基本 물질이라 할 수 있다.

『靈樞·本臟』에서 人身은 五臟에 저장된 精神에 의해 生成되어 다스려지는데 後天的으로 섭취되어 生成된 氣·血에 의해 생명현상이 유지됨을 나타내고 있다.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靈樞·本臟』)³²⁾

『素問·調經論』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血’과 ‘氣’ 뿐이라 하였다.

人之所有者, 血與氣耳(『素問·調經論』)³³⁾

『素問·八正神明論』에서 血氣는 人神이 되므로 삼가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素問·八正神明論』)³⁴⁾

여기에서도 血氣는 後天的으로 섭취되어 生成된 血氣로써 五臟의 精神을 보충하며, 五臟의 부림을 받아 全身의 기능과 형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五臟에 저장된 先天의 精氣에 대응하는 後天的으로 흡수된 氣를 ‘氣·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先天의 精氣’는 精, 元氣, 精氣, 精神으

로 표현되어 五臟에 저장되어 人身을 조절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氣·血’은 사람이 태어나서 五臟에 저장된 精氣의 작용에 의해 外界로부터 氣를 섭취하여 人體에 필요한 것으로 變化된 氣라고 할 수 있다.

(2) 氣·血의 相關性

氣·血이 실제로 하나의 개체이며 不可分의 關係인을 뒷받침하는 根據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血과 氣는 ‘異名同類’이다.

血之與氣 異名同類焉(『營衛生會』)³⁵⁾

「不居集」에서는 ‘血之與氣 異名同類’에 대해 氣는 ‘無形의 血’이며 血은 ‘有形의 氣’라고 설명하였다.

人賴以有生 其出入升降 濡潤宣通者 由氣使然也 故氣即無形之血 血即有形之氣 經曰 血之與氣 異名同類 是也³⁶⁾

② 氣·血은 ‘一而二 二而一’의 不可分의 關係이다

人之所有者 血與氣耳 …… 氣血以并陰陽相傾 …… 血氣離居一實一虛 …… 血并於陰氣并於陽是氣血離 …… 氣之所并爲血虛 血之并爲氣虛(『素問·八正神明論』)³⁷⁾

一陰一陽 互相維繫 而況運血者即是氣 守氣者即是血 氣爲陽 氣盛即爲火盛 血爲陰 血虛即水虛 一而二 二而一者也³⁸⁾

「八正神明論」에서 사람에게는 氣와 血만 있는데, 氣·血은 不可分의 關係라 하였고, 唐容川은 氣血은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 하였다.

③ 血은 氣를 生하는 모태이며 氣의 倅이 된다.

血爲氣母³⁹⁾

血爲氣配: 夫血譬則水也 氣譬則風也 風行水上 有血氣之象焉. 蓋氣者 血之帥也 氣行則血行 氣止則血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68.

31) 여기에서 上焦와 中焦에 따라 氣血을 命名하고 있지만, 上焦, 中焦는 五臟精氣의 위치와 기능에 따른 분류이며 크게 보면 모두 五臟精氣일 따름이다.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13.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18.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01.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20.

36) 王新華. 中國歷代醫論選.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351.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18.

38) 唐容川. 血證論.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69.

39)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中醫大辭典 基礎理論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20.

止. 氣溫 則血滑 氣寒 則血澁 氣有一息不運 則血有一息不行. 病出於血 調其氣 猶可以導達 病原於氣 區區調血 何加焉 故人之一身 調氣爲上 調血次之. 是亦先陽後陰之義也⁴⁰⁾

④ 氣는 血을 끌고 다닌다.

氣爲血之帥 氣行則血行⁴¹⁾

氣能攝血⁴²⁾

이외에 陰陽은 ‘互根 互用’하며 ‘相互 轉化’⁴³⁾하는 속성이 있으며 營·衛氣도 陰陽의 하나이므로 營·衛氣도 ‘互根 互用’하며 ‘相互 轉化’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氣·血은 ‘異名同類’로서 不可分의 관계이며, 서로 生하고 克이 된다. 營·衛氣는 氣·血의 작용과 기능을 설명한 개념이므로 營·衛氣도 ‘不可分’의 관계이며 ‘異名同類’로서 ‘相互 轉化’함을 알 수 있다.

3) 營·衛氣의 兩面性

(1) 營·衛氣의 機能上의 차이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營·衛氣는 두 가지 개체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한 가지 개체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가지 작용을 함으로써 각각의 명칭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營氣는 五臟精氣의 升降 운동 양식 中의 하나인데⁴⁴⁾, 「營氣」에 의하면 五臟精氣의 出入運動에 의해 음식에서 水穀之氣를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배설한다. 받아들여진 水穀之氣는 五臟精氣의 升降運動에 의해 全身으로 공급되어지는데 일정한 공간을 가진 經隧 속을 일정한 循行流注를 가지고서 행하게 된다.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

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 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附上, 注大趾間, 與太陰合, 上行抵脾, 從脾注心中, 循手少陰, 出腋, 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 出頰內, 注目內眥, 上巔, 下項, 合足太陽, 循脊, 下尻, 下行注小趾之端, 循足心, 注足少陰, 上行注腎, 從腎注心外, 散於胸中, 循心主脈, 出腋, 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 上行注臍中, 散於三焦, 從三焦注膻, 出脇, 注足少陽, 下行至附上, 復從附注大趾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頰頰之竅, 究於畜門. 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入臍,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營氣」)⁴⁵⁾

이는 營氣가 陰氣임을 뜻하고 飲食物에 근원하는 氣血을 運行하여 전신의 각 조직을 영양하는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精氣의 두 가지 기능 즉 陰精이 기초가 되는 것과 陽氣가 護衛하는 것 中에서 前者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營氣가 衛氣와 기능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衛氣 또한 五臟精氣의 運行 형식 中의 하나인데, 五臟精氣의 出入運動에 의해 하늘에서 天氣를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護衛한다. 따라서 衛氣는 외부 자극에 대한 五臟精氣의 反應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衛氣가 아주 미세하여 形을 가지지는 않지만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아주 날랜 陽氣임을 뜻하고 精氣의 두 가지 기능, 즉 陰精이 기초가 되고 陽氣가 護衛하는 것 中에서 後者の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자극에 대한 五臟精氣의 반응운동으로써의 衛氣는 각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人體가 內外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氣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五臟精氣의 運行 형식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晝夜의 환경 변화에 따른 衛氣의 순환을 나타낸 「衛氣行」

40) 許浚. 東醫寶鑑(內景篇).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205.

41) 唐容川. 血證論.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7.

42) 金允熙.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 17.

43) 김호현. 생리학. 제3권.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생리학교실. 2004. pp. 47-49.

44) 임동명, 박찬구. 營衛에 對한 考察. 대한원전지학회지. 9권. p. 725. “『靈樞·營衛生會』營衛者精氣也, 血者神氣也, 故血之與氣, 異名同類焉. 精氣는 五臟의 精氣를 말하고 神氣는 五臟의 神氣를 말하니 營衛之氣는 五臟의 精氣의 부립을 받아 활동을 하고, 血은 五臟神氣의 부립을 받아 활동을 하므로 氣와 血은 이름은 다르되 같은 무리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13.

을 꼽을 수 있다.

또한 『靈樞·刺節眞邪』에서 外部 氣候에 대한 衛氣의 반응도 營氣와 다른 기능적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무더우면 人氣는 밖에 있어서 피부가 이완되고 腠理가 열리면 氣血이 감소되고 땀이 많이 나게 되어 피부가 윤택해진다. 추워지면 人氣가 속에 있어서 피부가 치밀해지고 腠理가 닫혀 땀이 나지 않아 氣血이 강해지며 肌肉이 단단하고 거칠어진다.(『靈樞·刺節眞邪』)⁴⁶⁾

이로써 衛氣가 營氣와 기능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機能上 다르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 가지 개체로서 兩面性을 띄는 것’으로 이해해야 타당하다.

(2) 營·衛氣의 生成 根源의 차이점

營·衛氣와 氣·血은 生成에 있어서 鼻를 통하여 들어오는 外氣와 口를 통하여 들어오는 水穀之氣에 근원하므로, 결국 營·衛氣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營出於中焦’ ‘衛出於下焦’ ‘衛出於上焦’ 등을 根據로 營·衛氣의 根源이 다르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는 營·衛氣 生成의 根源에 대한 표현이 아니며, 作用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① ‘營出於中焦’

이는 水穀으로부터의 生成됨을 강조한 것이다. 中焦는 足陽明을 말한다.

足陽明에서 나온다는 것은 陽明이 後天의 근본으로서 飲食物을 섭취하여 水穀之氣를 氣·血 즉 營·衛氣로 化生한다.

따라서 ‘營出於中焦’는 中焦에서 水穀之氣로부터 ‘營氣’가 化生할 뿐만 아니라, ‘衛氣’도 化生한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黃元御는 “營衛皆出於中焦 無非水穀之所化也⁴⁷⁾”

라 하였으니, 營衛는 모두 中焦에서 나오니, (營衛는 모두) 水穀에서 化生하지 않음이 없다.

② ‘衛出於下焦’

이는 수면 후 각성 전 활동의 開始를 강조한 것이다. 下焦는 足少陰을 말한다.

衛氣의 運行에서 낮에 太陽·少陽·陽明을 運行하고 잠시 陰分으로 들어가는 것과 밤에 足少陰을 통해 陰分으로 들어간다. 이를 ‘衛出於下焦’라고 한 것이다⁴⁸⁾.

③ ‘衛出於上焦’

이는 각성 후 衛氣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上焦는 足太陽을 말한다.

足太陽에서 나온다는 것은 날이 밝으면서 衛氣가 足太陽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衛出於上焦’라고 한 것이다.

또한 「營衛生會」에서 上焦를 手太陰부터 시작하여 手太陰에서 마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衛氣가 足太陽을 통해 나오면서 營氣와 함께 運行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營·衛氣의 生成 根源은 동일하되, 작용상 부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3. 經脈과 絡脈의 循行 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

營·衛氣의 運動 特徵과 經脈과 絡脈의 運動 樣式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둘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營·衛氣의 運動 特徵

營氣와 衛氣는 두 가지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므로, ‘一線의 循環性’의 특징을 갖춘 것이 ‘營氣’이며, ‘向心性’ 또는 ‘複合의 循環性’ ‘皮膚의 表裏 升降’의 특징을 갖춘 것이 ‘衛氣’라고 추론할 수 있다.

(1) 營氣의 運行 特徵: ‘一線의 循環性’

p. 521.

48) 임동명, 박찬국. 營衛에 對한 考察. 대한원전의사학회지. 9권. p. 720.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316. “熱則滋雨而在上, 根荈少汁, 人氣在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淖澤. 寒則地凍水冰, 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濇”
4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經脈」에서 十二經脈은 「肺手太陰之脈 → 大腸手陽明之脈 → 胃足陽明之脈 → 脾足太陰之脈 → 心手少陰之脈 → 小腸手太陽之脈 → 膀胱足太陽之脈 → 腎足少陰之脈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三焦手少陽之脈 → 肝足厥陰之脈 → 上注肺⁴⁹⁾」로 「如環無端」하는 循行 經路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脈」의 運行 體系는 「營氣」의 五臟精氣가 水穀之氣를 받아들여 上下로 循環하며 全身을 榮養하는 「營氣」의 循行과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營氣의 運行 特徵은 「一線의 循環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衛氣의 運行 特徵: 「向心性」, 「複合的 循環性」
「皮膚의 表裏 升降」

「衛氣」에서 “其浮氣之不循經者, 爲衛氣. 其精氣之行于經者, 爲營氣. 陰陽相隨, 外內相貫, 如環之無端,”라 하여 衛氣는 일정한 經隧를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정한 經隧를 통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위기의 運行 特徵이 「一線의 循環性」을 가지지 않고, 「向心性」 또는 「複合的 循環性」의 特徵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衛氣의 運行 特徵: 「向心性」

「邪客」에서 滑利한 氣(즉 衛氣)가 엄지손가락 끝으로 出한 手太陰脈이 魚際, 太淵을 거쳐 다시 肺臟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급하였다.

「根結」에서 經氣가 人身의 陽分인 體表인 四肢 末端에서 시작하여 頭面과 胸部로 循行함을 알 수 있다.

「根結」에서 또한 經氣가 四肢 末端의 陽分으로 出·溜·注하여 陽分인 頭部와 胸部로 循行하다가, 陽分인 頭頸部를 통해 다시 陰分인 五臟으로 들어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衛氣」에서의 「本」 「標」는 「根結」에서의 「根」 「結」의 의미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인데, 本이 되는 部位는 四肢末端의 根·溜·注·入에 해당되고, 標의 部位는 根結의 「結」 부위와 根·溜·注·入에서의 動脈處의 「入」 부위와 「背俞」까지도 포함하였다⁵⁰⁾.

이상으로 「邪客」, 「根結」, 「衛氣」 등의 經脈體系는 「向心性」이며, 그 運行 主體는 衛氣이므로 衛氣는 「向心性」의 特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② 衛氣의 運行 特徵: 「複合的 循環性」

「衛氣行」에 나타난 「衛氣」의 循行은 표4처럼, 一線으로 循行하는 營氣와는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지 않다.

陽分을 循行하는 衛氣는 낮에 目에서 手足을 향해 下行하여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의 세 갈래로 갈라졌다가, 足少陽經에서 手少陽經으로 연결되어 耳前으로 上行하고, 다시 足陽明, 手陽明의 두 갈래로 갈라져서 足을 향해 下行하여 足心에서 마치고, 다시 目으로 上行하여 1周를 마치게 된다.

陰分을 循行하는 衛氣는 足心에서 시작하여 腎→心→肺→肝→脾의 相剋의 순서로 순행하고 나서 다시 腎으로 돌아감으로써 1周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經脈體系는 「陽分의 多線의 小循環」과 「陰分의 一線의 小循環」이 만나서 완성되므로, 두 개의 小循環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大循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陽分의 多線의 小循環」 내에서 多線의 經脈路線은 모두 頭部의 目과 耳에서 출발하여 手足으로 향함으로써, 「向心」 脈系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③ 衛氣의 運行 特徵: 皮膚의 表裏 升降

「根結」에서 經氣가 人身의 陽分인 體表인 四肢 末端에서 시작하여 頭面과 胸部로 循行함을 알 수 있다.

「根結」에서 또한 經氣가 四肢 末端의 陽分으로 出·溜·注하여 陽分인 頭部와 胸部로 循行하다가, 陽分인 頭頸部를 통해 다시 陰分인 五臟으로 들어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陽分과 陰分은 皮膚를 기준으로 하면 皮膚의 「表裏」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衛氣는 皮膚의 表裏를 升降한다고 볼 수 있다.

(2) 經脈·絡脈의 運動 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性의 比較

① 經脈의 運動 樣式과 營氣의 運行 特性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79-83.

50) 『靈樞·根結』에서는 手足陽經의 根流注入과 足經의 根結만을 논하였다.

經脈의 運動 樣式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肺手太陰之脈 → 大腸手陽明之脈 → 胃足陽明之脈 → 脾足太陰之脈 → 心手少陰之脈 → 小腸手太陽之脈 → 膀胱足太陽之脈 → 腎足少陰之脈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三焦手少陽之脈 → 肝足厥陰之脈 → 上注肺⁵¹⁾’로 ‘如環無端’하며, 그 運行 主體인 ‘營氣’는 ‘一線의 循環性’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② 絡脈의 運動 樣式과 衛氣의 運行 特性

絡脈은 十四經脈⁵²⁾에서 나와 運行하는 별도의 路線으로서, 四肢末端의 絡穴에서 나와 表裏經으로 走行하고, 또한 頭面이나 臟腑 또는 四肢로 走行하거나 散布된다.

手太陰之別은 列缺에서 나와 手陽明經으로 주행하고 散於魚際한다.

手少陰之別은 通里에서 나와 手太陽經으로 주행하고 繫舌本, 屬目系한다.

手心主之別은 內關에서 나와 手少陽經으로 주행하고 繫於心包, 絡心系한다.

手太陽之別은 支正에서 나와 手少陰經으로 주행하고 絡肩髃한다.

手陽明之別은 偏歷에서 나와 手太陰經으로 주행하고 偏齒, 入耳合於宗脈한다.

手少陽之別은 外關에서 나와 가슴속으로 들어가 手厥陰心包絡과 만난다.

足太陽之別은 飛陽에서 나와 足少陰經으로 주행한다.

足少陽之別은 光明에서 나와 足厥陰經으로 주행하고 下絡足跗한다.

足陽明之別은 豐隆에서 나와 足太陰經으로 주행하고 上絡頭項, 合諸經之氣, 下絡喉咽한다.

足太陰之別은 公孫에서 나와 足陽明經으로 주행하고 入絡腸胃한다.

足少陰之別은 大鍾에서 나와 足太陽經으로 주행

하고 上走於心包, 下外貫腰脊한다.

足厥陰之別은 蠡溝에서 나와 足少陽經으로 주행하고 結於莖한다.

任脈之別은 尾翳에서 나와 下鳩尾, 散於腹한다.

督脈之別은 長強에서 나와 散頭上하고 足太陽經으로 주행한다.

脾之大絡은 大包에서 나와 布胸脇한다.

十五絡은 實則必見하고, 虛則必下하여 보이지 않습니다.〔經脈〕⁵³⁾

이와 같이 絡脈의 循行 樣式은 「根結」의 ‘根結’ 및 ‘出溜注入’의 循行과 「衛氣」의 ‘標本’에서의 循行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十二絡脈의 循行 樣式은 ‘衛氣’의 ‘向心性’ 특징에 해당한다.

또한 「經脈」에서 氣가 皮膚의 表裏로 升降함에 따라서 絡脈의 虛實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絡脈을 따라 皮膚의 表裏로 升降하는 氣는 衛氣의 ‘皮膚의 表裏 升降’의 특징에 해당한다.

絡脈이 實하면 皮膚 표층으로 올라와 잘 보이고 虛하면 皮膚 아래 깊숙이 내려가 잘 보이지 않는다. (〔經脈〕)

Ⅲ. 總括 및 考察

「邪客」에서 滑利한 衛氣가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온 手太陰脈이 魚際, 太淵을 거쳐 다시 肺臟으로 들어가는 ‘向心性’ 經脈을 언급하였다.

「衛氣」에서 衛氣는 일정한 經隧를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根結」에서 經氣가 人身의 陽分인 體表인 四肢 末端에서 시작하여 頭面과 胸部로 循行한다고 하였다.

또한 「根結」에서 經氣가 四肢 末端의 陽分으로 出·溜·注하여 陽分인 頭部와 胸部로 循行하다가, 陽分인 頭頸部를 통해 다시 陰分인 五臟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79-83.

52) 「經脈」에서는 十二經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營氣」에서는 任督脈을 포함한 十四經脈으로 ‘營氣’의 循行을 설명하고 있다. 「經脈」에서 別絡을 논하면서 十四經脈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營氣’의 循行과 관련된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84-85.

이상을 정리하면, 「根結」과 「本輸」에서 陽分으로 나와서 陰分으로 들어가는 특성을 지닌 '向心' 脈系의 循行은 '衛氣'의 運行 特性이므로, 四肢 末端에서 頭頸部와 胸部를 거쳐 五臟으로 들어가는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는 衛氣임을 알 수 있다.

「營氣」에 의하면 '如環無端' '周而復始'하는 것이 '營氣'의 道라 하여, 水穀之氣로부터 얻어진 '營氣'라고 볼 수 있다.

「經脈」에서 十二經脈은 '肺手太陰之脈 → 大腸手陽明之脈 → 胃足陽明之脈 → 脾足太陰之脈 → 心手少陰之脈 → 小腸手太陽之脈 → 膀胱足太陽之脈 → 腎足少陰之脈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三焦手少陽之脈 → 肝足厥陰之脈 → 上注肺'⁵⁴⁾로 '如環無端'하는 循行 經路를 언급하고 있다.

「經脈」과 「營氣」에서 나타난 經脈體系는 '一線의 循環性'의 特徵을 띠면서 동시에 완벽히 일치하므로,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는 '營氣'라고 볼 수 있다.

營·衛氣는 氣·血이 經絡에서 循行하면서 나타나는 작용에 기준하여 나눈 개념이므로 본질적으로 營·衛氣와 氣血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氣·血, 즉 營·衛氣가 하나의 개체임(營·衛氣의 一元性)을 뒷받침하는 根據로서, 氣·血의 一元성과 氣·血의 不可分의 相關性을 들 수 있다.

營·衛氣의 兩面性을 뒷받침하는 根據로서 '營·衛氣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營·衛氣의 生成 根源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衛氣가 營氣가 機能上 다르다고 해서 本質이나 根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 가지 개체로서 兩面性을 띠는 것'으로 이해해야 타당하다.

'營出於中焦' '衛出於下焦' '衛出於上焦' 등은 營·衛氣 生成의 根源에 대한 표현이 아니며, 作用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다.

營氣의 運行 特徵은 '一線의 循環性'을 가지고 있다. 「經脈」의 運行 體系는 「營氣」의 五臟精氣가 水穀之氣를 받아들여 上下로 循環하며 '如環無端'하는 '營氣'의 循行과 완전히 동일하다.

衛氣의 運行 特徵은 '向心性', '複合의 循環性' '皮

膚의 表裏 升降'으로 요약할 수 있다.

「邪客」, 「根結」, 「衛氣」 등의 經脈體系는 '向心性'이며, 그 運行 主體는 衛氣이므로 衛氣는 '向心性'의 特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衛氣行」에 나타난 '衛氣'의 循行은 陽分을 循行하는 衛氣는 낮에 目에서 手足을 향해 下行하여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의 세 갈래로 갈라졌다가, 足少陽經에서 手少陽經으로 연결되어 耳前으로 上行하고, 다시 足陽明, 手陽明의 두 갈래로 갈라져서 足을 향해 下行하여 足心에서 마치고, 다시 目으로 上行하여 1周를 마치게 된다.

陰分을 循行하는 衛氣는 足心에서 시작하여 腎→心→肺→肝→脾의 相剋의 순서로 순행하고 나서 다시 腎으로 돌아감으로써 1周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經脈體系는 '陽分의 多線의 小循環'과 '陰分의 一線의 小循環'이 만나서 완성되므로, 두 개의 小循環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大循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陽分의 多線의 小循環' 내에서 多線의 經脈路線은 모두 頭部의 目과 耳에서 출발하여 手足으로 향함으로써, '向心' 脈系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根結」에서 經氣가 陽分으로 나와 陰分으로 들어감을 서술하였는데, 이 經氣는 衛氣라고 볼 수 있으며, 陽分과 陰分은 皮膚를 기준으로 하면 皮膚의 '表裏'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衛氣는 皮膚의 表裏를 升降한다고 볼 수 있다.

經脈의 運動 樣式은 '肺手太陰之脈 → 大腸手陽明之脈 → 胃足陽明之脈 → 脾足太陰之脈 → 心手少陰之脈 → 小腸手太陽之脈 → 膀胱足太陽之脈 → 腎足少陰之脈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三焦手少陽之脈 → 肝足厥陰之脈 → 上注肺'로 '如環無端'하며, 그 運行 主體인 '營氣'는 '一線의 循環性'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絡脈은 十四經脈에서 나와 運行하는 別도의 路線으로서, 四肢末端의 絡穴에서 나와 表裏經으로 走行하고, 또한 頭面이나 臟腑 또는 四肢로 走行하거나 散布된다.

이와 같이 絡脈의 循行 樣式은 「根結」의 '根結' 및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 79-83.

‘出溜注入’의 循行과 「衛氣」의 ‘標本’에서의 循行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十二(또는 十四)絡脈의 循行 樣式은 ‘衛氣’의 ‘向心性’ 특징에 해당한다.

의 運行 特徵과 絡脈의 運行 樣式이 일정한 方向性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서 착안하여 연구한다면 ‘迎隨補瀉’의 두 가지 기준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이상에서 ‘向心’ 脈系,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를 분석하고, 經脈과 絡脈의 循行 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을 살펴본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四肢 末端에서 體幹으로 향하는 ‘向心’ 脈系의 運行 主體는 ‘衛氣’이며, 이는 十五絡脈의 運行 樣式과 유사하다.

2. 一線으로 循環하는 ‘循環’ 脈系의 運行 主體는 ‘營氣’이며, 이는 十二經脈의 運行 樣式과 同一하다.

3. 營·衛氣는 本質이 다른 두 가지 개체가 아니라, 기능 또는 작용에 있어서 ‘兩面性’을 지니고 있는 本質과 根源이 같은 한 가지 개체이다.

4. 經脈의 運行樣式과 ‘營氣’의 運行 特徵이 同一하므로 經脈의 運行 主體는 ‘營氣’로 볼 수 있다.

5. 絡脈의 運行 樣式과 ‘衛氣’의 運行 特徵이 同一하므로 絡脈의 運行 主體는 ‘衛氣’로 볼 수 있다.

6. 비록 經脈과 絡脈의 運行 主體를 각각 ‘營氣’와 ‘衛氣’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는 기능과 작용 면에서 구분한 것일 뿐, 실제로는 經絡을 運行하는 經氣는 營衛의 구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鍼法에서 鍼芒의 方向에 따라 補瀉를 행하는 ‘迎隨補瀉’는 陰陽經에 따른 營氣의 循行 方向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 上下·左右·午前午後·男女의 차이까지 결합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해 是非를 논하고 있는데, ‘衛氣’

參 考 文 獻

「논문류」

1. 金基郁, 朴炫局, 李丙旭. 『靈樞·經脈』과 『靈樞·本輸』의 經脈體系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5. 18(3).
2.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關係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4. 17(4).
3. 丁彰炫. 『黃帝內經』의 思惟體系와 그 特徵. 대한한의학회지. 2004. 17(4).
4. 鄭昊鎭.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1. 14(1).
5. 金根瑩, 尹暢烈. 『素問·天元紀大論』에 對한 研究. 원전의사학회지. 1998. 11(1).
6. 孫光洛,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 동국한의학회연구소논문집. 1997. 6(1).
7. 文聖喆, 金聖勳. 歷代醫家들의 升降論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7. 11(1).
8. 엄동명, 박찬국. 營衛에 對한 考察. 원전의사학회지. 1996. 9권.

「저서류」

1.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2. 김호현. 생리학. 제천.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생리학교실. 2004.
3. 김교빈, 박석준, 안규석, 조남호, 최종덕, 황희경 지음. 동양철학과 한의학(대우학술총서 550). 서울. 아카넷. 2003.
4. 김달호 지음. 注解補註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5. 李慶雨.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1). 서울. 여강출판사. 2000.
6. 박찬국 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8. 전국한의과대학교 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 9권.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0. 洪元植 편찬,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1. 최달영, 김완희 共編,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12. 唐容川, 血證論.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84.
13. 王新華, 中國歷代醫論選,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14.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中醫大辭典 基礎理論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5. 許浚, 東醫寶鑑(內景篇). 서울, 大星文化社, 1981.

